

부산시립극단/동경강가도 韓·日 국제공동제작공연

고래 산그 브

21
세기
망망대해
판타지



■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 PUSAN METROPOLITAN CITY

■ 주관 : 부산문화회관 동경강가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홍원기 | 작가



‘고래’를 소재로, 언어 국적이 다른 두 나라 연극인들의 합동공연!

상황은 황당했지만 상상은 이미 깊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래를 만났습니다. 자기도 포유동물이고 가족이 있답니다. 태초의 고향이 육지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땅으로 향합니다. 고래의 피는 인간의 피처럼 붉은데, 인간처럼 피 터지는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피를 응고시킬 이유가 없어 선천적으로 혈우병이랍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상처는 곧 죽음이랍니다.

고래는 가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달에 비친 지구를 본답니다. 지구도 고래처럼 우주라는 바다를 회유하는 생명체랍니다. 단 하나의 상처가 죽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우리나라 시인 정현종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섬. 그 섬을 발견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 바다에 떠오른 거대한 생명체! 고래였습니다.

등단인물을 그 고래등에 상륙시키고 수없이 멀미를 했습니다. 가족과 생존, 인연과 업보,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끝없는 역사의 파도, 욕망의 태풍, 종말의 해일이 넘실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어떤 미래’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상쾌할 수도 있는 ‘약속되지 않는 미래’입니다.

李白而騎鯨飛上天(이백이기경비상천)!

우리나라 탈관(마당극)에서 춤을 시작할 때 외치는 불림(구호)입니다.

‘부산시립극단’과 ‘동경강가도’의 어울림으로, 두 나라의 연극과 문화와 교류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고래처럼 신명지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 거친 바다에도 <상생(相生)의 고래섬>들이 떠오를 ‘약속된 미래’도 꿈꿔봅니다.

이 <고래섬 어드벤처>는 바다를 오가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한마음으로 손을 잡은 많은 분들의 애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래섬』에 거는 기대

김문환 | 서울대 교수, 연극평론가



최근에 연이은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한일연극의 상호교류는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연극관계 인사들의 상호방문(유학생들의 점증 포함), 희곡의 번역 출판과 자체 제작, 공연 교환 등등에 덧붙여 각종 형태의 공동제작이 늘어가고 있다. 나 자신이 『체험적 일본연극론』이라는 평론집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홍원기가 쓰고, 시나가와 요시마사가 부산시립극단의 손기룡과 함께 연출하고, 한국과 일본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는 『고래섬』은 명실상부한 공동제작 공연이다. 홍원기는 그의 『에비대왕』이 이미 두개의 다른 연출로 일본에서 공연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시나가와 역시 한일관계를 다룬 두개의 작품, 즉 『히바카리』와 『침묵의 해협』을 한일공동으로 제작하여 이름을 얻었기에, 이번 공연은 좀 더 원숙한 경지를 보여줄 것이 기대된다.

동서 두 나라 사이에 갑자기 섬이 솟아오르자 양국 모두 외교 분쟁을 피하고자 <입도금지령>을 내렸다는 설정에서 독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연상케도 하지만, 실상 그 섬이 아기고래를 찾으러 온 엄마고래였다는 설정으로 생명 경외가 주제로서 다뤄진다. 거기에 양국 남녀사이의 사랑이 곁들여져 있는데, 다소간 모호해 보이는 전개과정은 연출 작업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공연의 매력은 어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한류를 주도한다고 볼 작곡(영화 『웰컴 투 동막골』 등의 음악 감독 한재권)과 가창(『대장금』의 이안 외)을 주축으로 삼아 노래와 춤, 그리고 익살스러운 연기로 풀어가고자 하는 데 있어 보인다.

부산과 서울, 그리고 일본의 연극중심지 하나인 키노쿠니야홀을 비롯한 다섯 개의 지방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이 공연이 큰 성과를 거두어 한일간의 우호증진과 연극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오사사 요시오 | 연극평론가, 일한연극교류센터회장 大笹吉雄 | 演劇評論家, 日韓演劇交流センター会長



동경 킹가도를 이끌고 있는 시나가와 요시마사 씨의 기획력과 실행력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사이에 일한국제공동제작의 제 3탄을 준비하여 곧 공연을 한다고 하여 한마디 써달라고 한다.

이 시리즈의 첫번째는 2001년에 극단 스바루와 한국의 극단 미추의 공동제작 「히바카리-4백년의 초상」로, 시나가와 씨는 희곡을 담당했다. 2005년에는 동경 킹가도와 서울시극단의 공동제작 「침묵의 해협」을 만들어졌고 시나가와 씨는 희곡과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계속해서 「고래섬」으로 동경 킹가도와 부산시립극단이 공동제작을 한다.

이 세 번의 공연에 등장하는 한국측 관계자 리스트를 들여다보면 한국연극계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히바카리」의 연출자인 손진책 씨, 「침묵의 해협」의 희곡이 운택하도록 협력을 해주신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故 차범석 선생님은 일본을 잘 아는 원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극작가였으며, 「에비대왕」으로 일본에도 이름이 알려진 홍원기 씨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극작가이다.

게다가 음악극으로 만들어지는 「고래섬」에는 일본에서 대히트를 친 TV드라마 「대장금」의 주제를 부른 이안이 주연을 맡는다고 하니...정말 적재적소라고 말하기 보다는...

사치스러운 정도의 호화캐스트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이보다 더 걸 맞는 무대는 없을 것 같다.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개막을 기다린다.

東京ギンガ堂を率いる品川能正の企画力と実行力には、舌を巻く。いつの間に日韓国際共同制作の第3弾を用意し、間もなく幕をあげるので、一言書けとのことである。

このシリーズの第一弾は、2001年の劇団昴と韓国的美醜の共同制作『火計り-四百年の肖像』で品川は脚本を担当した。2005年には東京ギンガ堂とソウル市劇団との共同制作公演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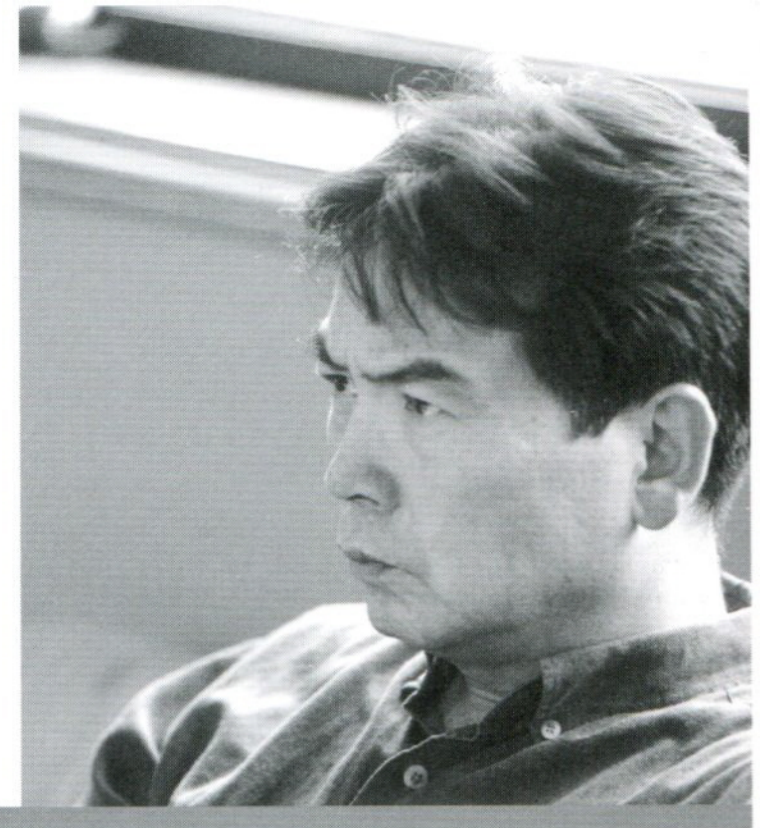
この三回の公演の、韓国側の関係者のリストを見ると、いささか韓国の演劇界を知る者として、感嘆する。『火計り』の演出家の孫辰策(ソン・ジンチェク)、『沈黙の海峡』の脚本協力者の車凡錫(チャ・ボムソク)、そして『くじら島』の脚本を書いた洪元其(ホン・ウォンギ)。韓国を代表する演出家の孫の選択は劇団昴だったにせよ、惜しくも今年他界した車は日本をよく知る韓国の長老とも言うべき劇作家だったし、『エビ大王』でわが国でもクローズアップされた洪は、現在もっとも注目を集めている働き盛りの劇作家である。

しかも音楽劇として展開される『くじら島』には、わが国でも大ヒットしているテレビドラマ『宮廷女官チャングムの誓い』の主題歌を歌ったイ・アンが主演するという。まことに適材適所、というよりも、贅沢なほどの人選で、シリーズの掉尾を飾るにこれ以上ふさわしい舞台はないだろう。大いに期待して開演を待ちたい。

21C 망망대해 Fantasy

-自然이 人間에게 경고하는 소리없는 메시지!-

손기룡 |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2004년 일본하기페스티벌에 작품 「태자 햄릿」으로 공식초청을 받을 즈음, 동경 김가도에서 한·일 문화교류 목적으로 한 합동공연의 제의를 받았다.

그해부터 지금 공연에 이르기까지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힘들게 부산시립극단과 동경김가도와 합동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제는 고래의 생태계를 통한 가족의 문제를 다루기로 논의를 한 뒤 작가 흥원기씨에게 작품을 의뢰하여 「억수바다」란 제목으로 초고가 나왔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탈고한 완성본이 「고래섬」이다.

作名「고래섬」은 한 가족을 통한 인간과 고래의 모성애를 神話적으로 투영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결국 업(카르마)을 낳게 되고 그 업의 피는 代를 이어 東洋의 윤회설에 기인하여 태초적 창세기로 막을 내린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목적 속에서 바둥거리지만 자연은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자연은 어떠한 존재형식을 취하든 직접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존재물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은 인간에게 말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부산시립극단과 동경김가도와 합동공연의 의미는 한.일의 사회적, 문화적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인류가 극복해야 될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원초적 인간의 본능으로 접근하여 한·일교류공연을 통해 세계 문화공존에 한발 다가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2003년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위촉, 영산대학교 초빙교수
「Woyzeck」, 창작뮤지컬「영원지애」연출
- 2004년 「태자 햄릿」연출 - 밀양공연예술축제, 거창국제연극제, 일본하기페스티벌 공식초청순회공연
- 2005년 APEC기념 축하공연 (가(歌).무(舞).악(樂).극(劇))「즐거워라! 무릉도원」연출
- 2006년 「십이야」연출

아시아의 새로운 신화 アジアの新しい神話

시나가와 요시마사 | 동경 킹가도 대표, 각본가, 연출가
品川能正 | 東京ギンガ堂代表, 脚本家, 演出家



이 작품은 제가 4년 전에 일본 NHK라디오 드라마의 대본으로 썼던 「달의 섬」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가족과 고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만 이것을 소재로 의욕의 넘치는 극작가, 흥원기 씨가 신작으로 써주신 것이 「고래섬」입니다.

스케일도 더더욱 커지고 한국인다운 시각으로 혈연에 관한 이야기를 유머로 표현하여 새로운 아시아의 신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 재능이 넘치는 작곡가, 한재권 씨와 우에다 씨가 훌륭한 곡을 만들어 주셔서 한일 공동제작의 새로운 양식의 음악극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가와 연출가로서 두 번의 한일공동작품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작가의 작품에 연출로서 참가를 하게 되어 각투(各鬪)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제작은 언제나 말과 습관의 차이 때문에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의 민족이 만들 수 없는 다이나믹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은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과 의식이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열매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도 있지만 쓴 열매도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그 열매의 맛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본과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불리고 있는 한국. 오랫동안 양국의 창구이며 문화의 교차로인 부산시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첫 공연을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또 이 작품이 같이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커다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개막 시간입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신화 「고래섬」. 최후까지 천천히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과 광기를 그린다”는 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2001년 한일국제공동제작「히바카리」의 희곡을 씀 (제46회 키시다 희곡상 최종후보작)

2003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3만 5천명을 동원한 야외음악콘서트를 연출.

2004년 대표작「KAZUKI~여기가 나의 지구」(작, 연출)로 미국공연.

2005년 서울시극단과 공동제작으로 「침묵의 해협」(작, 연출)을 성공시키는 등 국제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この作品は、私が4年前に日本のNHKラジオドラマの脚本として書いた『月の島』が原型となっています。この作品は、人間の家族と鯨の姿を書いたものですが、これをベースに韓国の気鋭の劇作家、洪元其さんに新作として書き下ろして頂いたのが『くじら島』です。

スケールアップし、韓国人らしい血の話をユーモアに包み、新しいアジアの神話として仕上げていただきました。これに日韓の才能溢れる作曲家、韓在権さんと上田享さんに素晴らしい曲をつけていただき、日韓共同制作の新しい音楽劇としてこの世に誕生しました。

私は、これまでに2度、作家や演出家として、日韓共同の作品に関わってきましたが今回は初めて、韓国人の作家の作品に演出家として出会い格闘しています。

国際共同制作には、いつも言葉や習慣の違いが大きな壁として立ちまはだかりです。しかし、その壁を乗り越えた時、1つの民族だけでは作り得ないダイナミックな作品が立ち上がります。

この作品は、人間の普遍的な欲望や意識が固い殻の中に入った果物のように埋め込まれています。甘い果実もあれば、苦い果物もあります。お客様には、それを一つ一つ味わっていただければと願っています。

日本と近くて遠い国と呼ばれる韓国。長く両国の窓口であり、文化の交差点であった釜山市で稽古をし、初日を迎えうれてることに大きな喜びを感じます。また、この作品をトル共に創って下さったすべての方に大きな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そろそろ開演時間です。アジアの新しい神話『くじら島』。最後までごゆっくりお楽しみください。

“人間の理性と狂気を描く”作風として高い評価を得ている。

2001年には日韓共同制作「火計り」の脚本を手がけ(第46回岸田癡曲賞最終候補作)

2003年はロシア、ハバロフスクで3万5千人動員の野外音楽コンサートの演出。

2004年は代表作「KAZUKI~ここが私の地球」(作・演出)でアメリカ公演を。

2005年はソウル市劇団との共同制作「沈黙の海峡」(作・演出)を成功させるなど国際的に活躍している。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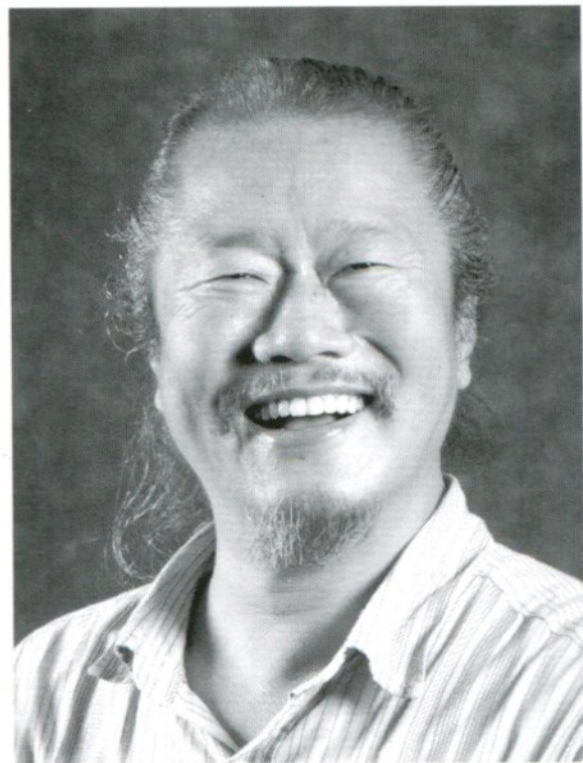
이 안

- 드라마 대장금, 홍콩 익스프레스, 황금사과, MBC 대하드라마 신돈 OST 삽입곡
- 1집 음반 '물고리자리' 발매, EBS문화예술 36.5 메인MC
- 2집 음반 'Call it love' 발매, KBS 파워 인터뷰, KBS 가치대발견, 보물찾기 고정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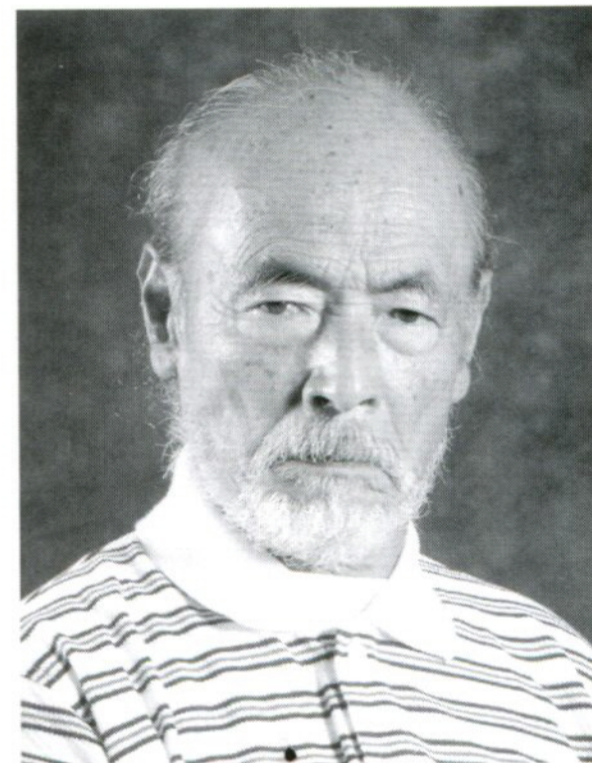
나 자 명

- 뮤지컬 "환타스틱스"
- 연극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일본-연극 "오적"
- 일본-연극 "레즈씨스터즈"
- 일본-모노드라마 연극 "슬픔의 일곱 무대"
- 연극 "발코니"(2004년 서울연극제 연기상)



이 돈 희

- 1956년 3월 27일생
- 전 부산시립무용단원, 경남도립무용단원
- 현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아류이수자
- 현 부산시립극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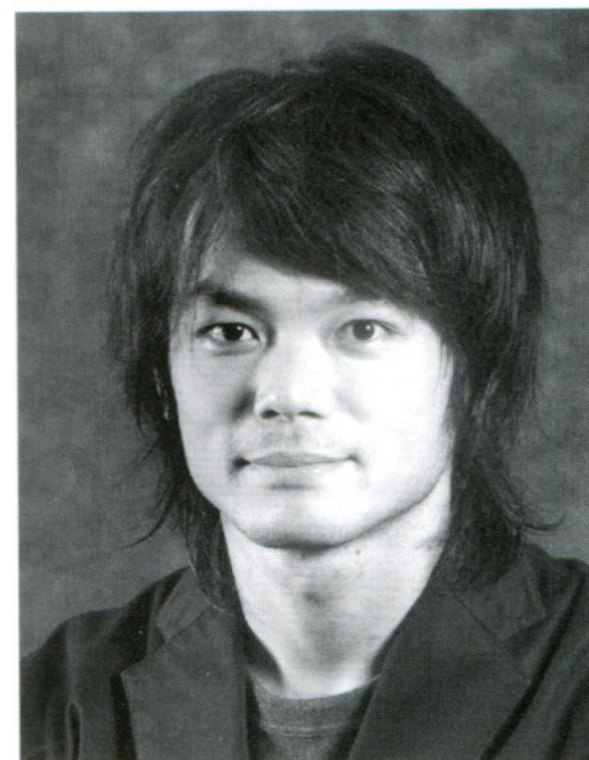
이나가키 쇼조

- 1928년 2월 14일생
- 요코하마 출신
- 와세다대학 문학부 졸업
- 분가쿠(文学)좌를 거쳐 극단 구모(雲) 창립에 참가
- 1976년부터 극단 스바루 소속



엄 지 선

- 1978년 10월 20일생
- 부산경상대학 졸업
- 현 부산시립극단 단원



타지마 쉐나

- 1979년 10월 19일생
- 니가타현 출신
- 추에쓰고등학교 졸업
- 2001년 4월부터 청년좌 소속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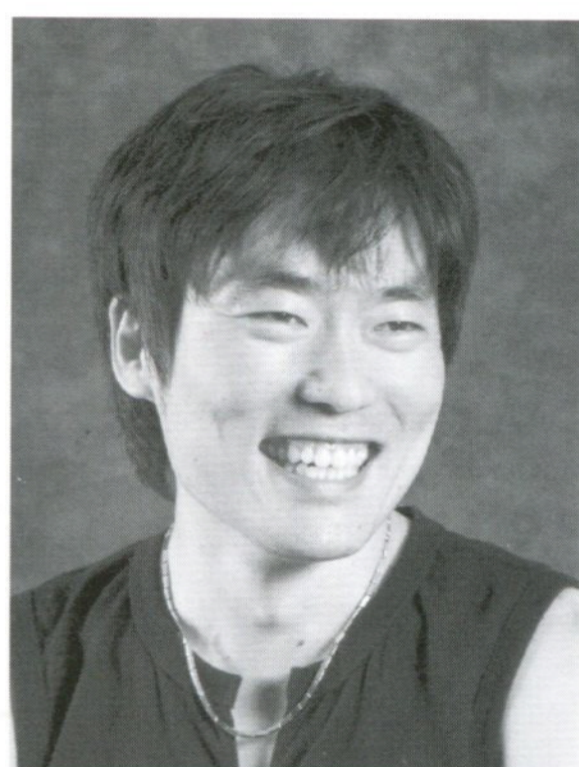
김은희

- 1971년 1월 29일생
- 경성대학원 연극영화과 재학중
- 현 부산시립극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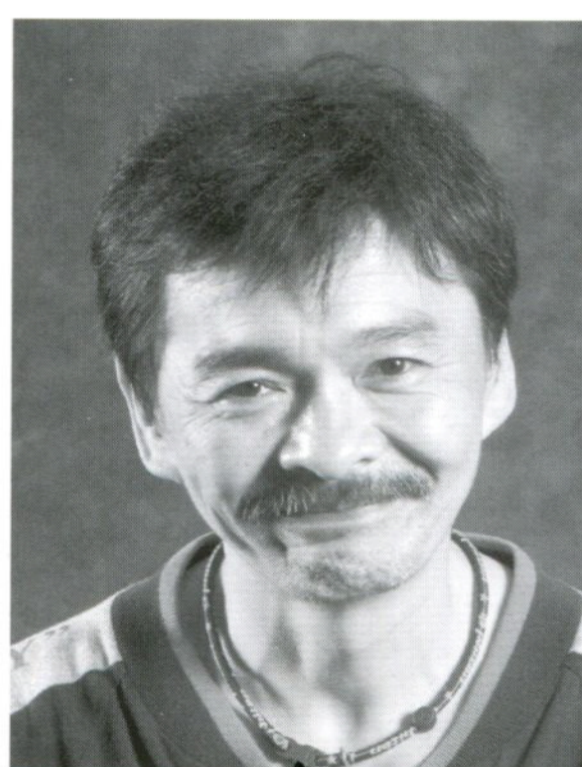
요다 사치코

- 1959년 2월 1일생
- 가나가와현 출신
- 오미린대학 문학부 영문학과 졸업
- 극단스바루 연극학교를 거쳐 1985년부터 극단스바루 소속



유성주

- 1973년 11월 12일생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현 부산시립극단 단원



하나부사 도오루

- 1950년 12월 3일생
- 토호학원 연극과 졸업
- 자택극장 “존과메리”, “한밤의 카우보이” 연출
- 현 쿠로텐트극단 소속



이혁우

- 1974년 9월 21일생
- 동서대 연극과 졸업
- 현 부산시립극단 단원



다카하시 사치코

- 1983년 1월 21일생
- 2005년 3월 청년좌연구소 졸업
- 현 극단 청년좌 소속